

아삭아삭김장페스티벌 9일 개막

17일까지 9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10%는 당일 현장접수로 제공

김장철 대표 축제인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임실군과 임실엔양남마을사업단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제4회 임실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임실군과 임실엔양남마을사업단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제4회 임실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김장페스티벌은 작년보다 30% 이상 물량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임실N치즈축제 이후에도 국화꽃이 만연한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려, 김장도 담그고, 국화향연도 즐기고, 치즈도 구매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장을 담가보는 김장체험을 진행한 바 있다.

정을 크게 덜 수 있다는 매력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올해에는 세 차례의 가을태풍과 재배면적 감소, 작황부진, 영농비 상승 등으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배추와 무, 고추 등의 가격이 폭등, 어느때보다 김장페스티벌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올해 임실군이 확보한 물량은 약 40여톤 안팎으로 이 중 35톤이 사전신청 접수됐다. 군은 나머지 10%가량은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김장비용 부담 때문에 걱정하시는 가정이 많은 것 같다"며 "김장페스티벌에 오셔서 맛있는 청정김장김치를 부담없이 담귀하시고, 오신 길에 아직 국화꽃이 만발한 임실치즈테마파크도 구경하시고, 치즈도 맛보시며 늦가을 날의 추억을 많이들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총 700타입이 참여신청을 마쳤으며, 약 100여명이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임실군표 배추와 홍고추 등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 전국적으로 참여신청 문의가 쇄도하면서 축제전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임실군 김장페스티벌에 참여하면, 보통 3~4인 가족 기준인 김장김치 30kg에 15만원선에서 김장김

앞선 지난달 30일 군은 김장페스티벌을 앞두고 절임배추 납품농가를 대상으로 유정임 식품명인이 배추절임 이론교육 및 실습을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농가들이 직접

임실 30kg에 15만원선에서 김장김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우수'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올해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한 2019년 정신건강사업 실무자 워크숍에서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원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원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기능 향상 및 재활을 위해 주간재활 프로그램, 숲치유 프로그램 등 통합적 사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자살위험, 수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살 위험 개선을 위해 농약 음독 자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생명사랑 지킴이를 양성하여 생명사랑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제4회 애향대상 시상식' 성황리 개최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박재만)에서는 7일 임실문화원에서 '제4회 애향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와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등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향우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식전행사에 최윤성 하모니 연주를 비롯한 라인댄스 공연 등이 펼쳐져

행사의 열기를 더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박재만 본부장은 기념사에서 "고향 사랑 실천에 모범을 보인 애향인들을 선정하는 애향대상식이 벌써 4회째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에 앞장서는 인물을 선정하여 지역사랑을 위해 헌신한 애향인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근 경남 거제시 장평동 원용관 주민자치위원장과 심태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20여명이 순창 팔덕면을 방문했다.

거제시 장평동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지 팔덕면 방문

최근 경남 거제시 장평동 원용관 주민자치위원장과 심태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20여 명이 순창 팔덕면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5년 7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후 네번째 방문이다. 이날, 자매결연 교류 행사는 팔덕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환영인사, 특산물 교환, 주민자치 발전방향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수기를 맞이한 강천산 군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뿐만 아니라 팔덕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친자매, 친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반겨주고 친절해 주며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힘을 누리려고 하니 감사할 따름이다. 고 말했다.

이날, 자매결연 교류 행사는 팔덕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환영인사, 특산물 교환, 주민자치 발전방향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순창군 팔덕면 임춘근 주민자치위원장은 "2015년 7월 처음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해오며 지금은 양 기관 위원님들이 서로 호응호제 하는 사이가 되었다. 앞으로도 양 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모두 상생발전을 위한 관계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후에는 호남의 금강산인 강천산 군립공원 산행으로 주민자치위원간 우의를 돈독히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원용관 주민자치위원장은 "가을철

순수기를 맞이한 강천산 군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뿐만 아니라 팔덕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친자매, 친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반겨주고 친절해 주며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힘을 누리려고 하니 감사할 따름이다. 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원예농협, 2020년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선정

총 7억원 사업비 확보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0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남원원예농협이 최종 선정되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은 지역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료,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식자재형과 농축·분말형, 첨가물 소재형 등으로 구분된다. 남원원예농협 전라북도 자체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현장평가,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 13개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남원원예농협이 식자재형으로 국비 2억1천만원, 도비 6천3백만원, 시비 1억4천7백만원, 지방 2억8천만원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남원원예농협은 남원시 주변면에 소재하는 이너뷰티 식품가공공장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357개 학교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서울시 800여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풀무원, ICOOP생협 200여개 매장,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등에 배, 사과, 딸기 등 냉동 전처리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선정을 받

판으로 배, 사과 등 식자재형 푸레가 공라인을 구축하여 착즙시스템 도입 및 동결건조 시설 등 제품생산과 별크로포장으로 반제품 생산량을 증대하여 반가공 식품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확대 및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반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던 결실이라 생각하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가공분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여 농식품산업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